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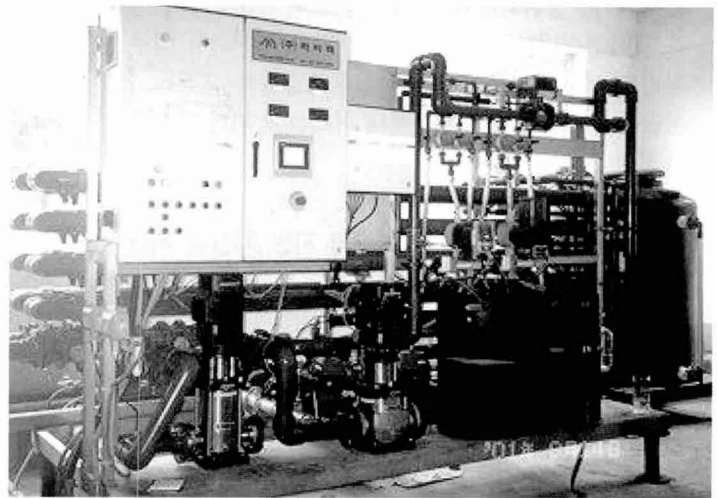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전개

자원의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배출물질을 재이용함으로써 지구에의 부하를 제로(0)에 가깝게 하는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을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는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가 ESCO협회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효성에바라는 1978년부터 환경사업에 참여해 수처리, 폐기물처리,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계, 시공, 시운전을 일괄 수행하면서 각 분야의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 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일본 환경분야의 선도 업체인 EBARA사와의 합작을 통한 개발 및 기술도입으로 유동산소소각로, 순수제조, 퇴비화, 분뇨처리분야의 효율적이고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첨단기술에 대한 부단한 연구개발로 국내 환경설비 분야의 기술발전을 주도하면서 최근에는 정수고도처리시설과 하천정화시설, 하폐수 고도처리시설, 쓰레기 가스화 용융시설 등 사업 역영을 확대하고 있다.